

위드 코로나 대응 지역 정책 발굴

장수군, 일상회복추진단 구성·운영... 경제 활성화·방역 의료 체계 마련 등 집중

장수군이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수군 일상회복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장수군에 따르면 빠른 일상 회복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정영수 군수를 단장으로 경제민생분야, 사회문화분야, 자치안전분야, 방역의료분야 등을 편성해 4개 분과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정부의 단계별 일상회복 추진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위드 코로나' 시행에 대응해 지역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한다.

군은 추진단을 중심으로 분과별 정책 과제를 구체화해 경제 활성화 및 주민들의 문화적 치유, 감염 및 방역 의료 체계 마련 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영수 군수는 "위드코로나 시기에 접어든 만큼 장수군 특성에 맞는 다양



장수군이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수군 일상회복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한 정책을 발굴해 하루 빨리 주민들이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무주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군, 11월 구매한도 50만원→100만원 상향 조정

무주군이 무주사랑 상품권 구매한도를 11월 한 달 동안 월 50만 원에서 1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11월 정부의 코리아세일 페스타로 국민 모두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무주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의 손실 누적 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피해 극복 지원을 위해 구매한도를 상향해 지역경제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지류상품권 최대 30만 원 구매한도로 모두 1백만 원까지 구매가 가능

하게 되면서 매출 및 소비 활성화가 뒤따를 전망이다.

앞서 군은 지난 7월 한 달 동안 지역 경기 침체 극복과 소비진작 및 카드형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카드페이백 이벤트를 추진했다.

카드형 상품권 페이백 이벤트는 지역 내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상권 활기를 위해 부정 유통의 가능성이 적은 카드 상품권의 사용액 5%를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하였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상권이 크게 위축되면서 지역경제가 침체됐다"며 "소상공인들

의 손실과 전반적인 피해 극복 지원을 위해 무주사랑 상품권 구매한도를 상향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사랑상품권 도입은 침체된 무주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황인홍 군수가 취임 전부터 공약으로 내건 사업이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주민들에게 오전 원 권과 만 원 권으로 유통을 시작했다.

올해 10월 말까지 가맹점이 1,116개로 크게 늘었으며, 682억 원이 판매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12월부터는 종전대로 구매한도가 50만 원으로 돌아와, 지류 구매 한도액은 30만 원으로 지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음주폐해 예방의 달 캠페인 전개

무주군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폐해예방의 달(11월)을 맞아 3일부터 30일까지 '음주 대신, 건강생활 실천하자'를 주제로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음주 대신, 건강생활 실천하자'는 음주 대신 건강생활과 절주 실천으로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내 음주조장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무주군민 가운데 스마트폰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캠페인은 모바일 걸기 앱 '워크온'을 활용해 비대면 걸기 챌린지를 운영할 예정이며, 참여자는 4주 동안 걸음 수 20만보 이상 달성하고, 음주습관 검사와 절주 실천 다짐에 관한 간단한 설문에 참여하면 기념품이 제공된다.

기념품은 챌린지 종료 후 워크온 내 입력한 배송지로 음주습관 검사 결과지와 행동지침을 동봉해 개별 우편 발송된다.

챌린지 참여방법은 △모바일 앱 워크

온 설치, △메인화면 하단 세번째 커뮤니티탭 선택, △추천 커뮤니티 검색, △무주군 건강걷기 실천 프로젝트! 가입, △공지사항 확인하고 챌린지 참여하기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군은 또 올바른 절주문화 확산을 위해 여러 대중매체를 통해 생활 속 절주실천수칙을 홍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생활 속 절주실천수칙으로 △술자리는 되도록 피한다 △남에게 술을 강요하지 않는다 △원샷을 하지 않는다 △폭탄주를 마시지 않는다 △음주 후 3일은 금주한다 등 수칙을 발표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창열 진안군 부군수가 2일 다중이용시설 등을 방문해 방역 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에 나섰다.

김창열 진안 부군수, 방역 점검

학원·실내체육시설 등 3개소 방문 방역수칙 준수·의견 청취

진안군은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 실전을 위한 점검에 나섰다.

2일에는 김창열 부군수가 다중이용시설 등을 방문해 방역 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에 나섰다.

김 부군수는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3개소를 방문해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실내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의견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군은 추후에도 식당, 카페, 유흥시설 및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 사업장(외국인 기숙사 및 집단거주시설)에 대해 소관 부서별 현장 방역 지도 점

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타 지역방문, 여행자제 권고, 방역수칙 당부 등 홍보활동도 병행해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동시에 방역 수칙 준수에도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김창열 부군수는 "이번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인하여 그동안 지켜왔던 방역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방역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며 "여전히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마스크 착용, 유흥상자 진단 검사 받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용담면민의 장 수상자 선정

이영례·임영신·강창섭·김영민·김순리 씨 등 4개 부문 5명

진안군 용담면(면장 윤재준)은 2일 2021년도 용담면민의 장 수상자 4개 부문 5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용담면은 지난달 29일 용담면면민의 장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상자를 결정했다.

수상 분야는 4개로 수상자는 공익장에 이영례(76), 산업장에 임영신(62), 애항장에 강창섭(65), 효열장에 김영민(61), 김순리(51)씨 등 5명이다.

공익장 수상자 이영례 씨는 30여년 동안 마을 부녀회장에서 군 부녀회장까지 역임하며 면과 군을 위해 아낌없는 봉사과 희생을 했다.

또한 생활개선회장으로도 활동하며 주변 이웃을 위해 봉사한 했다. 현재는 적십자 면 회장으로 재직하며 오랜 기간 면민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돌보고 있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산업장 수상자 임영신 씨는 2015년부터 마이산 깻잎 법인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열악한 환경에도 깻잎 농사에 매진하여 용담면 깻잎 작목반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한 깻잎을 생산하면서 재배기술을 이웃들과 공유하여 용담면 깻잎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애항장 수상자 강창섭씨는 1997년부터 10여년 간 용담면 새마을지도자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땀 수물로 인한 용담면 발전기금 보존하는 데 기여한 점, 관내 사회단체 활동을 활발히 하여 지역주민 화합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효열장 수상자는 2명으로 김영민 씨는 10여년 간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과 모범적인 행실로 마을사람들과 사회단체로부터 인정을 받는 점을 공로로 인정받았고 김순리씨는 결혼해 서부터 지금까지 20여년 간 시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면서, 항상 밝은 얼굴로 마을 어르신들께 봉사한 점을 공로로 인정받았다.

이들에 대한 시상은 오는 9일 용담면 체련공원에서 개최되는 '제25회 용담면민의 날 기념식'에서 있을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고원 스테이 미디어 인플루언서 투어 진행

진안군은 지역의 압도적인 경관과 특색 있는 음식 자원을 활용한 국내 여행 프로그램인 '진안고원 스테이'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을 다졌다.

군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지난 5월, 10월 2차례에 걸쳐 1박2일로 여행작가, 여행감독, 예술가 등 10여명의 여행관련 전문가와 '진안고원 스테이' 미디어 인플루언서 투어 를 진행했다.

투어는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마을투어, 진안의 숨은 공간을 재해석 하는 예술투어, 지역의 색깔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미식투어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미식투어는 정전면의 씨없는 곱감(미조마을), 진안읍의 탕갈한 울무비빔밥(하가막마을) 산촌 브런치(에코타운) 등의 마을밥상을 맛보게 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산골애찬' 음식점의 산나물 불고기(진안을 한우촌), 더덕불고기(진안을 농기맛집 흥연), 묵밥(부귀면 등용원) 등으로 진안고원만의 특별한 음식을 선보여 인플루언서들에게 신선한 경험과 함께 미식 기쁨의 가능성을 보았다는 평을 받았다.

군은 이번 인플루언서 투어를 통해 여행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수정해나가는 추후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마이산 북부 단풍행사 농특산물 판매행사 개최

진안군과 마이산 북부상가 협의회(회장 정봉운)가 기획한 2021년 마이산 북부단풍행사(농특산물 판매)가 오는 14일까지 진안을 마이산 북부상가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침체된 마이산 관광단지(북부 상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열린다.

행사는 마이산 관광단지(북부 상가) 인근에 진안군에서 생산한 농·특산물 판매부스 설치와 다양한 공연들이 펼쳐진다.

특히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이바사, 조개치공연단, 이애란, 버드리 등의 품비공연과 장기자랑 등이 화려하게 열려 행사장을 찾는 이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